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115~144
http://dx.doi.org/10.21211/JHUM.88.5

‘로’ 명사구의 의미역 설정

- EFF, INS, FNS 등을 중심으로 -

최형강*

〈차 례〉

1. 머리말
2. EFF와 INS의 설정 문제
3. EFF와 FNS의 설정 문제
4. FNS와 CNT의 설정 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 EFF(영향주)와 INS(도구), FNS(결과상태) 등의 문제를 여러 예문들을 통해 살펴본 논의이다. EFF와 INS의 비교, EFF와 FNS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FNS와 CNT(내용)의 비교를 통해서 ‘로’ 명사구의 의미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로’ 명사구로 쓰인 예들 중 ‘비의도적인 유발자’인 EFF를 의미역으로 가진 예들과 ‘의도적인 방편’인 INS을 의

*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시간강사

미역으로 가지는 예들을 비교하면서는 이들이 가진 차이가 행위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FF와 FNS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이 상보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를 통해서는 EFF와 FNS의 차이가 내부구조의 상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FNS를 인지나 평가의 '결과'로 한정하고 CNT를 발화나 인지,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FNS와 CNT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로' 명사구, 의미역, 영향주, 도구, 결과상태, 내용

1. 머리말

'로' 명사구가 동사나 연어 구성(collocation)을 통해 다양한 의미역을 가진 채 쓰일 수 있음은 김지은(1998), 최호철 외(1998), 조일영・김일환(1999), 유혜원(2004), 홍재성(2006), 이은섭(2008)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1)]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에서 어떤 것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위에서 제시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연구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에서 EFF(Effector, 영향주)를 구심점으로 하여 '로' 명사구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역인 INS(Instrument, 도구)와 FNS (Final State, 결과상태)로 확대 적용해 의미역의 설정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2)]

---

1) '로' 명사구는 조사 '로'가 쓰인 명사구를 의미한다. '로' 명사구를 단순히 부사어로 처리하거나 보어로 처리하는 방식 대신에 의미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이므로 '로' 명사구로 제시할 것이다.

2) 다른 논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는 논의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미역의 표시를 EFF, INS, FNS, CNT

본고에서는 논의의 중심으로 삼은 EFF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두 가지와 FNS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 가지를 포함하여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로’ 명사구의 의미역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EFF와 INS가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한 것이다.[3] 김현권・김종명(2001: 323), 박철우・김종명(2005: 561-562)에서는 INS는 행위나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에서 방편, 재료 혹은 경로를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라고 했는데 방편이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가질 때에 EFF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예에서 혼란스러운 쓰임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EFF와 FNS의 선택 문제를 다룰 것이다. EFF는 ‘비의도적 영향주’이고 FNS는 ‘결과 상태’이므로 각각 행위의 원인과 행위의 결과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역의 부여에 혼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예들에서 EFF와 FNS의 부여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현권・김종명(2001: 322-323), 박철우・김종명(2005: 560-562)에서는 EFF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개체에 대해 부여되는 의미역으로 보았고, FNS는 술어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역이라고 하였는데,[4] EFF인지

등으로 단순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3) RSN(Reason, 원인)이 따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하위분과인 ‘연어사전’ 분과의 의미역 설정에 따라 EFF와 INS의 문제로 다루기로 하겠다. RSN의 설정은 최호철 외(1998: 18-20), 조일영・김일환(1999: 15-1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이은섭(2008: 66-67)에서는 ‘삼다, 여기다’가 취하는 ‘로’ 명사구에 ‘결과 상태역’의 외연이 확장된 ‘결과역’을 부여한 바 있다.

FNS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로' 명사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FNS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평가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로' 명사구인 FNS와, '로' 명사구는 아니지만 그에 대응될 수 있는 CNT의 설정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FNS와 CNT를 모두 상정한 예들을 검토함으로써 FNS와 CNT의 차이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박철우·김종명(2005: 563-564)에서는 CNT(Content, 내용)를 발화동사, 인지동사, 평가동사 등에서 발화, 인지, 평가의 내용을 나타내는 의미역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CNT와 FNS가 공유하는 인지나 평가의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CNT는 '로' 명사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FNS인 '로' 명사구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 명사구와 관련된 EFF, FNS, INS 등의 의미역을 가진 자료와 CNT의 의미역을 가진 자료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본고에서 중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하위 분과인 연어사전 분과의 자료이다.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하위 분과인 용언사전의 경우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로' 명사구에 한해서는 본고의 논의 방향에 부합하는 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의미역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연어사전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로' 명사구의 FNS와 내포문인 CNT의 비교는 연어사전에서 그 예를 찾기 용이하므로 연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예를 찾아 '로' 명사구와 의미역의 혼란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연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 '로' 명사구의 의미역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연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용언사전의 기술 내용을 일정 부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의미역의 설정과 개념은 위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의미역을 반영한 김현권·김종명(2001), 박철우·김종명(2005) 등에서 가져오기로 하겠다.

2. EFF와 INS의 설정 문제

조일영·김일환(1999: 15-16) 등과 같이 '로' 명사구에 대해 EFF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논의도 있고,[5] 박철우·김종명(2005: 562)에서 EFF로 제시한 예들은 주어이거나 '에' 명사구 논항에 한정되어 있지만,[6] EFF을 의미역으로 하는 '로' 명사구의 예를 연어사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연어사전에서는 '로' 명사구에 대해 EFF를 설정한 예들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기술 내용을 주로 언급할 것인데, 다음은 연어 구성 '폭 삭다, 꽃이 시들다, 난항을 겪다, 지장을 받다'에 설정된 '로' 명사구의 예들이다. 연어사전에서 EFF로 설정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는데, 연어사전에 제시된 것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EFF뿐만이 아니라 후술할 INS 등에 대해서도 밑줄을 그어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

5) 조일영·김일환(1999: 15-16)에서 '원인역'으로 제시한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렸다.'나 '전봇대가 태풍으로 바닥에 쓰러졌다.'의 '산사태로'나 '태풍으로'에 대해서도 EFF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원인역'이 가진 〈+영향〉이라는 의미자질이 EFF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6) 박철우·김종명(2005: 562)에 제시된 예들처럼 '강풍이 입간판을 전부 쓰러뜨렸다.'나 '철수가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와 같이 EFF 논항이 주어이거나 서술어와 함께 연어 구성을 이루는 성분으로 쓰일 때에는 생략이 어렵다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을 것이다.

(1) ㄱ. 이웃 집 아저씨의 얼굴은 고생으로 폭 삭았다.
ㄴ. 꽃병에 놓아 둔 꽃이 물 부족으로 금방 시들었다.
ㄷ. 수사관들이 목격자의 부재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ㄹ. 옆집 여자가 딸의 피아노 소리로 논문을 쓰는 것에 지장을 받았다고 난리더군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비의도적 으로 유발하는 개체가 EFF이므로 (1)에서 밑줄 친 부분은 EFF를 의미역으로 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1ㄱ), (1ㄴ), (1ㄷ)의 예들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어 논항'적인 특성을 가진 성분으로 볼 수 있다.[7] 의미역의 문제가 생략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포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사가 부여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면 EFF의 부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얼굴이 폭 삭기 위해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 삭다'가 요구하는 (1ㄱ)의 '고생으로'는 EFF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1ㄴ)의 '물 부족으로'나 (1ㄷ)의 '목격자의 부재로'로 시들고, 수사에 난항을 겪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ㄹ)의 '지장을 받다'가 가지는 EFF 논항은 연어 구성을 이루

7) 최형강(2006: 459)에서는 서술어와 함께 대용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서 서술어와의 관련성이 다른 논항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논항을 '부가어 논항(Adjunct-Argument)'으로 설정한 바 있다. (1ㄱ), (1ㄴ), (1ㄷ)의 '로' 명사구가 생략가능성을 통해 볼 때 서술어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부가어 논항'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수적인 논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단 연어사전에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논항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면서 새롭게 요구하는 논항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장'이나 '받다' 자체는 EFF 논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장'이 직접적으로 EFF 논항을 가질 수는 없으나 의미관계로는 '지장'을 유발하는 개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어 구성을 통해 EFF 논항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유발자인 '딸의 피아노 소리로'는 EFF 논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INS로 볼 수 있지 않을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행위의 방편이 이유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INS도 거론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INS는 의도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EFF와는 차이가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딸의 피아노 소리로'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 한,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지장'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했다는 점에서 EFF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연어사전에 EFF로 기술되어 있는 예인데, '로' 명사구 자체의 의도성이 연어 구성을 통해서는 발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눈이 멀다, 신용을 잃다' 등의 연어 구성을 통해서 실현되는 '로' 명사구가 비의도성을 가지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ㄱ. 그는 아이들 장난으로 눈이 멀었다.
ㄴ. 그 회사는 우리 회사에 채무에 대해 고의 부도로 신용을 잃었다.

(2ㄱ)은 '아이들 장난으로'는 그 자체로만 보면 행위성이 강조될 뿐 비의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가 눈이 먼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들 장난으로'가 비의도성을 가지게 되므로 EFF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2ㄴ)의 '고의 부도로'는 '고의'라는 단어로 인해 의도성이 엿보이지만 '고의'는 '부도'와 관련된 것이지,

고의 부도로 '신용을 잃은 사건'을 유발하고자 한 것은 아니므로 EFF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1ㄱ), (1ㄴ), (1ㄷ)과는 달리 EFF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도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연어 구성을 통해서는 비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예들인 것이다. 즉, (1ㄹ)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FF는 비의도적인 사건 유발자에게 부여되면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INS가 쓰일 만한 자리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8] (1ㄹ)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가 아니라 '로' 명사구로 실현된 EFF는 INS로 설정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아래와 같이 '감기로'와 같이 동일한 '로' 명사구에 EFF와 INS가 각각 적용된 경우이다.

다음은 연어사전에서 '펄펄 끓다'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에 설정한 '로' 명사구의 예이다.

(3)ㄱ. 감기로 아기의 이마가 펄펄 끓고 있었다.
ㄴ. 나는 감기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

연어사전에서는 (3ㄱ)의 '감기로'는 펄펄 끓는 사건의 비의도적 유발자로 해석하여 EFF로 상정한 것이고, (3ㄴ)의 '감기로'는 골

8) 김창섭(2008: 165)에서는 내부보충어에 의존해야만 출현할 수 있는 부접명사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접명사의 문제가 내재논항과 대응하여 논의될 때에도 EFF와 INS의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외재논항은 주어, 내재논항은 동사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목적어 등의 논항인데 EFF는 주어인 외재논항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동사구 안에서 내재논항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INS는 언제나 내재논항일 뿐이지 외재논항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주어와 '로' 명사구로 쓰이는 것이 모두 가능한 것은 INS와는 다른 EFF만의 특징인 것이다.

치를 지끈지끈 아프게 한 방편으로서 INS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3ㄴ)의 '감기로'만 INS로 상정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EFF와 INS를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필요한데, EFF에서 특히 비의도성이 부각된다는 것을 이들의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ㄱ)과 (3ㄴ)의 '감기로'는 모두 EFF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INS는 상대적으로 의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3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INS가 설정된 논항이 있으면 주어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AGT (Agent, 행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3ㄴ)의 주어가 AGT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9] (3ㄴ)의 주어는 EFF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3)에서 볼 수 있는 혼란 때문에라도 EFF와 INS의 예를 다양하게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EFF와 INS의 비의도성과 의도성의 측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연어 구성 '화를 당하다'와 '화를 면하다'는 이러한 대조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ㄱ. 고모가 교통사고로 화를 당했다.
ㄴ. 철수가 기지로 화를 면했다.

(4ㄱ)에서 '교통사고로'는 화를 당하게 한 '비의도적인 유발자'이

9) 김지은(1998: 383-384)에서도 'NP-로'가 '도구'나 '수단' 등으로 해석될 때에는 주어가 이 'NP-로'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의 의미역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또, '행위주'가 직접적으로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현 가능한 행위자를 상정할 수 있을 때에만 '도구'나 '수단'을 의미하는 'NP-로'가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지만, (4ㄴ)에서의 '기지로'는 화를 면하게 된 '의도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10] 이러한 특성이 연어사전 전체를 통해 완벽하게 공유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이러한 구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의 기준이 없다면 이들을 EFF와 INS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ㄱ)에서 볼 수 있듯이 '당하다'류는 EFF의 설정에 관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당하다'와 관련하여 INS가 상정되는 오류를 통해 EFF와 INS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해직을 당하다'와 '응징을 당하다' 등의 비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어사전에서는 '응징을 당하다'와 동일한 예문으로 '응징을 받다'를 기술하였는데, '당하다'류에 포함해서 '응징을 받다'를 덧붙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5) ㄱ. 부장이 회사에서 공금 유용 혐의로 해직을 당했다.
ㄴ. 저항군이 지난밤의 야간공습에 대해 우리에게 대규모 포격으로 응징을 당했다/받았다.

(5ㄱ)의 '공금 유용 혐의로'는 EFF로 연어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10) (4ㄴ)의 주어 '철수가'가 AGT를 의미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이때의 '기지로'는 INS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주어가 AGT인 것과 INS의 설정이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형용사와 동사라는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3ㄴ)보다는 (4ㄴ)의 주어가 행위성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현권·김종명(2001: 321)에서는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면서 그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논항이어서 행위주와 대상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경우를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기도 한 바 있는데, (4ㄴ)의 '철수가'가 행위주와 대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행위주'도 '행위주'이므로 '대상행위주'의 설정은 AGT와 INS가 함께 실현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데,[11] (5ㄴ)의 '대규모 포격으로'는 INS로 기술되어 있다. 의도적인 경우가 INS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공금 유용 혐의로'는 당연히 INS가 될 수는 없다. (5ㄴ)의 '대규모 포격으로'는 의도성이 충족된 INS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의 (4ㄱ)과 (4ㄴ)의 비교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응징을 당하다, 응징을 받다'가 요구하는 '대규모 포격으로'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주어인 '저항군(이)'의 입장에서 '응징을 당하다, 응징을 받다'를 고려하면 '대규모 포격으로'는 의도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때에도 '공금 유용 혐의로'와 마찬가지로 EFF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GT의 실현과 INS이 필연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고, 박철우·김종명(2005: 562)에서도 EFF가 실현되면 따로 AGT가 실현되지 않지만, INS는 '로'와 함께 실현되면서 AGT도 실현되는 구성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도 (5ㄴ)의 '대규모 포격으로'는 EFF가 되는 것이다. 결국, EFF가 쓰이면 AGT가 다른 논항에 부여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의 주어는 모두 GOL(GOAL, 도착점)로 볼 수 있으므로[12] '로' 명사구가 INS가 아니라 비의도성을 가진 EFF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11) 평가의 결과인 FNS로 보아야 하지 않을지 의심해 볼 수도 있겠으나 FNS를 추상적 도착점이라고 본다면 '공금 유용 혐의로'는 FNS가 될 수 없다. '해직'의 이유, 즉 '해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해직'의 유발과 관련해서는 EFF가 설정될 수 있는 의미역인 것이다.

12) 연어사전에서도 (5ㄱ)의 '부장이'와 (5ㄴ)의 '저항군이'의 의미역을 GOL로 설정한 바 있다. INS가 나타나려면 그 주어가 AGT나 그에 상응하는 의미역을 가져야 할 텐데 GOL이 행위의 영향을 다른 대상에게 미치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로' 명사구에 대해 INS의 설정이 배제되고 EFF로의 설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 EFF와 FNS의 설정 문제

'로' 명사구와 관련하여 EFF와 INS의 배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EFF와 FNS의 혼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EFF가 FNS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예들 중 여기에서 다룰 예는 '악명이 높다, 이채를 띠다, 패착을 두다'와 '본심이 드러나다' 등이다. 이러한 예들은 EFF와 FNS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연어사전에는 FNS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예들이다.

EFF로 설정한 연어사전의 예문을 아래에 제시할 것인데, 연어사전에서 EFF로 설정한 논항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표시할 것이다. EFF와 FNS의 예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본고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경우에는 밑줄 대신에 EFF와 FNS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6)ㄱ. 그 사람은 <u>뇌물수수로</u> 악명이 높다.
ㄴ. 그 사람은 비열한 정치가로 악명이 높다.
(7) 단편소설은 문학 장르 중에서 <u>그 선구적인 역할로</u> 단연 이채를 띤다.
(8) 흑은 국수 결정전에서 백30의 공격에 대해 <u>흑31로</u> 패착을 두었다.
(9)ㄱ. 삼촌은 <u>엄마의 증거 제시로</u> 유산 상속에 대해 본심이 드러났다.
ㄴ. 삼촌은 엄마의 증거 제시로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본심이 드러났다.

'악명이 높다'의 경우, 연어사전에 기술된 (6ㄱ)의 '뇌물수수로'에 대해서는 EFF를 설정할 수 있으나 다른 예를 통해 '악명이 높

다'가 FNS 논항을 가지는 것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연어사전에 제시된 예 이외에 (6ㄴ)과 같은 예문을 설정하면 이때의 '비열한 정치가로'는 박철우·김종명(2005: 560)에서 기술한 '평가' 등의 의미를 가진 술어들이 FNS를 요구한다는 설명에 부합하게 된다. 적어도 '뇌물수수로'의 경우와 동질적이지는 않으므로 EFF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6ㄱ)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뇌물수수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하기 어렵지만, (6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비열한 정치가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6ㄴ)의 '비열한 정치가로'를 FNS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철우·김종명(2005: 560)에서는 FNS에 해당하는 '로' 명사구가 자동사 구성의 경우 주어인 '이/가' 명사구에 대해, 타동사 구성의 경우 목적어 '을/를' 명사구에 대해 술어(predicate)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13] 이러한 술어의 역할을 통해 주어와 서술어를 이루는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FNS의 설정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14]

(6ㄴ)은 '그 사람은 비열한 정치가라고 악명이 높다.'로 쓰일 수도 있는데, 후술할 내용을 참조하면 CNT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은 FNS이므로 (6ㄴ)에 FNS를 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

13) 김지은(1998: 369)에서도 이러한 '로' 명사구가 나타내는 것이 자동사 구문에서는 주어의 속성이고, 타동사 구문에서는 목적어의 속성이라고 하였다.

14)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분과 중 용언사전의 예인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 우승국으로 유명하다.'의 '월드컵 최다 우승국으로'도 EFF가 아니라 FNS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어사전에서는 '정평이 나다'에 대해 'FNS|CNT'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예가 '유명하다'나 '악명이 높다'에 FNS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과 같은 예에서의 '이채를 띠다'도 EFF가 아니라 FNS인 '그 선구적인 역할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채를 띠다'도 평가의 결과나 그 평가의 결과에서 나온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15] 이때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로'는 FNS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FNS의 설정으로 '단편소설은 문학 장르 중에서 선구적인 역할이다.(단편소설은 문학 장르 중에서 선구적인 것이다.)'와 같은 내부구조의 상정도 가능하다.

(8)과 같은 예문이 제시된 '패착을 두다'의 '흑31로'도 FNS로 설정될 수 있다. '흑31로'를 연어사전에서와 같이 비의도적인 사건의 유발자를 나타내는 EFF로 설정하지 않고 FNS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패착을 두다'의 결과물이 '흑31'이므로 FNS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백30은 흑31이다.'와 같은 내부구조의 상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16] '흑31로'는 FNS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7), (8) 등의 예는 EFF와 FNS의 혼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이나 (7) 등과 같이 FNS가 평가의 잣대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EFF가 가진 비의도적인 유발의 의미와 결부되어 혼란스럽게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FF가 가진 비의도적인 유발의 의미가 FNS가 가진 평가의 결과와 구분하기 어려운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구조의 상정 가능성을 통해 혼란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이다. 내부구조의 상정 여부가 FNS와 EFF의 구별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

15) 박철우・김종명(2005: 560)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평가동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자격(Status)' 등과 같은 의미역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이는 '백30의 공격은 흑31로 방어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백30의 공격에 대해'가 '백30의 공격을'로도 나타날 수 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본심이 드러나다'는 앞의 예들과는 달리 EFF와 함께 FNS가 설정될 수 있는 예이다. 연어사전의 기술 내용에서는 '엄마의 증거 제시로'와 같은 EFF만을 설정하여 (9ㄱ)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으나 EFF와 함께 FNS도 설정이 가능하다. 즉, (9ㄴ)의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와 같이 FNS가 포함된 예문의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17] (9ㄴ)에서는 '에 대해' 구성을 따로 논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이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전체가 FNS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18] 이때의 '엄마의 증거 제시로'는 엄마의 의도일 수는 있지만 주어인 삼촌이 의도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EFF의 비의도성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EFF와 FNS가 한 문장 안에서 모두 설정될 수 있는 이러한 예는 EFF와 FNS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연어사전에서는 FNS를 설정했으나 EFF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 (10)의 밑줄 그은 부분은 '창피를 당하다'의 예문 중 연어사전에서 FNS로 설정한 부분이다. '세계 언론에게'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만 '세계 언론에서'로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본고에서는 '엄마의 증거 제시로'를 (9ㄱ)과 같은 위치에 놓기 위하여 (9ㄴ)과 같이 기술하였지만, '로' 명사구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9ㄴ)은 '엄마의 증거 제시로 삼촌은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본심이 드러났다.'로 써도 좋을 것이다.

18) (9ㄴ)에서 '유산에 대해'를 따로 목적어로 설정하여 '*유산이 욕심이 있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없지만, 주어인 '삼촌은'과 FNS인 '유산에 욕심이 있다'를 통해 '삼촌은 유산에 욕심이 있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도 '유산에 대해'를 일부러 따로 THM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유산에 욕심이 있다.' 전체가 '드러난 본심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이 전체를 FNS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9ㄱ)의 '유산 상속에 대해'는 '본심이 드러나다'의 THM 논항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심이 드러나다'는 (9ㄱ)과 같이 EFF 논항과 THM 논항을 가질 수도 있고, (9ㄴ)과 같이 EFF 논항과 FNS 논항을 가질 수도 있는 연어인 것이다.

(10) 우리나라는 세계 언론에서 불량 음식 파동에 대해 문화 의식 수준 미달로 창피를 당했다.

연어사전에서는 (10)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창피를 당하다'에 대해서 FNS 논항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창피를 당하다'가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FNS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10)에서 FNS 논항로 설정된 부분은 EFF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창피를 당한 결과가 아니라 창피를 유발하는 비의도적인 문제가 '문화 의식 수준 미달'이기 때문이다. 또, (10)에 대해서는 '*불량 음식 파동이 문화 의식 수준 미달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도 없다. 사실, 이때의 '에 대해' 구성은 목적어인 '을/를' 명사구로 교체될 수 없으므로[19] '*불량 음식 파동이 문화 의식 수준 미달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해 보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창피를 당하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10)의 '문화 의식 수준 미달로'는 연어사전에서와는 달리 EFF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불량 음식 파동에 대해'가 격조사와 교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가어적인 양상도 보이므로 '에 대해' 구성이 쓰이는 것을 배제한 채 '로' 명사구만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연어사전에서 다루는 EFF의 생략가능성을 들어서 생략가능성에 따라 EFF인지를 판별하지 않은 것처럼 FNS도 생략가능성 여부로 EFF와의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6)에서 (10)의 모든 예

19) 연어사전에서도 '불량 음식 파동에 대해'와 같이 '에 대해'만을 제시하였다. '에 대해'가 '을/를'로 교체되는 경우라면 목적어로서의 상정이 가능할 텐데, 연어사전에서도 목적어로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해'가 다른 격조사로 교체되는 문제는 박철우·김종명 (2005: 559)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들은 아래와 같이 EFF든 FNS든 생략이 모두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ㄱ. 그 사람은 악명이 높다.
ㄴ. 단편소설은 문학 장르 중에서 단연 이채를 띤다.
ㄷ. 흑은 국수 결정전에서 백30의 공격에 대해 패착을 두었다.
ㄹ. 삼촌은 본심이 드러났다.
ㅁ. 우리나라는 창피를 당했다.

위의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FF로 설정되었던 성분이든, FNS로 설정되었던 성분이든 생략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6)과 같이 EFF가 설정될 수도 있고 FNS가 설정될 수 있는 예에서 EFF나 FNS가 생략되어 (11ㄱ)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생략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11ㄹ)과 같이 (9)에 제시된 EFF 논항과 FNS 논항이 모두 생략되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점이 생략가능성의 문제를 일단락 짓는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략이 무리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논항이 충족된 ‘주어-서술어’ 구성이나 ‘목적어-서술어’ 구성을 이루는 연어들이 요구하는 EFF나 FNS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밀접한 공기관계를 가진 연어 구성의 요소가 생략되기는 어려워도 연어 구성이 요구하는 EFF나 FNS의 생략은 연어 구성 내의 요소보다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순을 바꾸어 문장의 앞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인데, FNS로 설정된 경우에는 내부구조를 상정했을 때 맨 앞의 ‘로’ 명사구를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FNS가 ‘결과상태’를 의미하지만 ‘출발점’과 ‘도달점’의 관계와는 달리 ‘최초상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FNS 논항도 문장의 앞으로 이동해서 쓰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

는 것이다.[20] 다만, (12ㄱ), (12ㅁ), (12ㅅ) 등과 같이 EFF로 설정될 수 있는 예들은 보다 쉽게 문장의 맨 앞에서 쓰일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EFF와 FNS에 해당하는 성분들에 모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12) ㄱ. 뇌물수수로 그 사람은 악명이 높다.
ㄴ. ?비열한 정치가로 그 사람은 악명이 높다.
ㄷ. ?그 선구적인 역할로 단편소설은 문학 장르 중에서 단연 이채를 띤다.
ㄹ. ?흑31로 흑은 국수 결정전에서 백30의 공격에 대해 패착을 두었다.
ㅁ. 엄마의 증거 제시로 삼촌은 유산 상속에 대해 본심이 드러났다.
ㅂ. ?유산에 대해 욕심이 있는 것으로 삼촌은 본심이 드러났다.
ㅅ. 문화 의식 수준 미달로 우리나라는 창피를 당했다.

위의 예들은 생략가능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장의 앞으로

20) 신서인(2007: 72)에서는 결과상태 의미역을 가지는 논항은 어순 변이가 제약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박철우·김종명(2005: 560)에서 결과상태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은 '로' 명사구가 어순상 대상인 명사구보다 뒤에, 즉 술어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유혜원(2004: 215-216)에서도 '을/를' 명사구와 '로' 명사구의 어순을 바꾸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본고에서 FNS로 파악한 예들의 어순 도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목적어와 '로' 명사구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아예 문두에서 주제처럼 쓰이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별히 FNS와 함께 EFF로 쓰인 '로' 명사구의 어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EFF와 FNS가 생략가능성과 함께 공유하는 어순적인 특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일 뿐이다. 후술하겠지만, FNS가 문두로 이동했을 때 더 어색한데 이는 서술어와의 관련성에서 EFF보다 우위에 놓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동을 해도 문장의 쓰임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2ㄴ), (12ㄷ), (12ㄹ), (12ㅂ)의 경우와 같이 FNS가 문두로 이동했을 때가 더 어색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12ㄱ)과 (12ㄴ), (12ㅁ)과 (12ㅂ)을 각각 비교해 보아도 EFF와 FNS로 쓰이는 예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여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결과는 EFF와 FNS의 혼란에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1] 앞에서 언급한 내부구조의 상정 여부가 이러한 혼란을 상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FNS와 CNT의 설정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박철우・김종명(2005: 560)에서는 FNS에 해당하는 ‘로’ 명사구가 자동사 구성의 경우에는 주어에 대해, 타동사 구성의 경우에는 목적어에 대해 술어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22] 이러한 술어의 역할이 CNT가 담고 있는 인지나 평가

---

21) 또, 신서인(2007: 73)에서 결과상태 의미역을 가지는 논항이 ‘관계화’되지 못한다고 한 것을 본고의 예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악명이 높은 뇌물수수’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악명이 높은 비열한 정치가’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와 같은 관계화의 차이가 각각 EFF와 FNS로 설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창피를 당한 문화 의식 수준 미달’과 같은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EFF로 설정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조일영・김일환(1999: 19)에서도 ‘로’ 명사구가 ‘자격역’을 가질 때에는 ‘재료역’을 가질 때와는 달리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FNS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논의할 것이 없고 본고에서 제시한 모든 예에서 관계화의 문제가 FNS와 EFF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본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다.

22) 이러한 술어의 역할은 앞의 (6), (7), (8), (9)의 예들에 대해 내부구조를

의 내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23] FNS와 CNT의 혼란은 FNS와 CNT가 모두 상정될 수 있는 예들이 많다는 점에서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CNT를 발화나 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FNS를 인지나 평가의 '결과'로 한정하는 것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결론이 나다, 결론이 나오다'에 FNS와 CNT가 모두 설정된 경우이다. 연어사전에서 'FNS|CNT'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 본고에서는 모두 밑줄을 그어 (13)에 제시를 하였는데, 연어 구성 '결론이 나다, 결론이 나오다'의 예문 중 (13ㄱ)과 같이 '로'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이 FNS, (13ㄴ)과 같이 '-다고' 등으로 제시된 것이 CNT의 예이다.

(13)ㄱ. 사장이 바람이 났다는 풍문은 우리에게 헛소문으로 결론이 났다/결론이 나왔다.
ㄴ. 그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나왔다.

(13ㄱ)의 '헛소문으로'는 결론이 나거나 나온 결과이면서 '(사장이 바람이 났다는) 풍문은 헛소문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FNS로 설정될 수 있다. (13ㄴ)의 '근거가 없다고'가 '결론이 나다/나오다'가 요구하는 CNT임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어사전에서는 위의 (13ㄱ)과 (13ㄴ)에서와 같이 FNS에 해당하는 예문과 CNT에 해당하는 예문을 따로 제시하였

상정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3) 유혜원(2004: 211)에서는 'N로'가 'N(이)라고'와 교체되는 동사들을 언급하면서 '주어 목적어 인상 구문'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어 구성에 의해 의미역을 부여받는 대등한 논항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다. 유혜원(2004: 198)에서 단문의 기본 문형으로 상정한 것이 본고와 동질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만, 예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13ㄱ)을 '사장이 바람이 났다는 풍문은 우리에게 헛소문이라고 결론이 났다/결론이 나왔다.'로 하거나 (13ㄴ)을 '그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나왔다.'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24] 예문의 차이에 관계없이 '결론이 나다, 결론이 나오다'에 대해서는 FNS와 CNT를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FNS와 CNT가 모두 상정되는 것은 후술할 '정평이 나다'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CNT가 우선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연어사전에서는 '명령을 내리다'와 '신호를 보내다'가 FNS 논항과 CNT 논항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 'FNS|CNT'로 제시했으나, 아래의 '명령을 내리다'와 '신호를 보내다'에 대해서는 FNS를 설정하기 어렵고 CNT를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명령을 내리다'는 (14)에 제시하였고, '신호를 보내다'는 (15)에 제시하였다. 연어사전의 예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위해서 예문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앞에서와 같이 연어사전에서 FNS나 CNT로 설정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는데, 이는 (14), (15)뿐만이 아니라 아래의 다른 예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4) ㄱ.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진격에 대해 즉각 실행으로 명령을 내렸다.
ㄴ.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진격에 대해 즉각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5) ㄱ. ??작전본부는 예하부대에 적의 공격에 대해 정면 승부로 신호를 보냈다.

---

24) '근거가 없는 것으로'가 FNS이므로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와 같은 내부구조의 상정도 가능하다. '(사장이 바람이 났다는) 풍문은 헛소문이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사 구문에서는 주어에 대해 FNS가 술어의 역할을 하는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ㄴ. 작전본부는 예하부대에 적의 공격에 대해 정면으로 승부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14)에서는 '명령을 내린 결과'가 아니라 '명령의 내용'이 '즉각 실행'이므로 (14ㄱ)과 같이 '즉각 실행으로'를 통해 FNS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14ㄴ)과 같이 '즉각 실행하라고'를 통해 CNT로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신호를 보내다'에 대해서도 (15ㄱ)과 같이 '신호를 보낸 결과'를 FNS로 설정한 예문은 자연스럽지 않다. '신호의 내용'이 '정면으로 승부한다고'로 제시된 (15ㄴ)이 자연스러울 뿐이다.[25]

'명령을 내리다'와 '신호를 보내다'는 '에게' 논항이나 '에' 논항이 내부구조의 주어로 설정되고 '실행'과 '승부'의 서술성과 주어의 유정성을 고려하여 '대원들이 즉각 실행한다./대원들이 진격을 즉각 실행한다.'나 '예하부대가 정면으로 승부한다./예하부대가 적의 공격에 대해 정면으로 승부한다.'와 같은 문장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을/를' 명사구에 대응되는 '에 대해' 구성이 주어로 실현된 '?*진격이 즉각 실행이다.'나 '*적의 공격이 정면 승부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CNT와 관련되는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는 있지만 FNS를 판별하기 위한 내부구조를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FNS로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어사전에서는 'FNS|CNT'로 설정했으나 '허풍을 떨다'에 대해서는 FNS를 상정하기가 더욱 더 어렵다.

---

25) (14ㄴ)과 마찬가지로 (15ㄴ)은 예문을 '정면으로 승부하라고'로 수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 명령이나 신호의 '결과'가 아니라 명령이나 신호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ㄱ. ?*모 기업체는 각 신문사에 자기 기업체의 기술 수준에 대해 세계 최고로 허풍을 떨었다.
ㄴ. 모 기업체는 각 신문사에 자기 기업체의 기술 수준에 대해 세계에서 최고라고 허풍을 떨었다.

(16)은 '허풍을 떤 결과'가 '세계 최고'가 아니므로 (16ㄱ)과 같이 '세계 최고로'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허풍의 내용'을 CNT의 형식으로 제시한 (16ㄴ)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다.[26]

(16)에 대해 '자기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CNT의 문제일 뿐이지 FNS의 문제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16ㄴ)으로만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내부구조의 상정이 (16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6ㄴ)을 통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6ㄱ)이 수용되기 어려운 문장인 것이다. 즉, 앞서의 '명령을 내리다, 신호를 보내다'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다.'는 CNT와 관련되는 내부구조와 FNS를 판별하기 위한 내부구조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FNS를 통해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CNT를 통해 상정되는 것이다.

내부구조의 상정이 가능하더라도 '결과'를 의미하지 않고 '내용'을 의미하여 FNS가 설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 앞서의 '명령을 내리다. 신호를 보내다'와 같이 모문의 목적어가 내부구조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FNS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CNT 자체가 내포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CNT와 FNS의 비교에서는 내부구조의 상정이 FNS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증거로는 사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구조의

26) 용언사전의 경우에도 CNT만을 반영하여 '그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허풍떨었다.' 등과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14), (15), (16) 등과 같이 CNT와 FNS에 따라 내부구조의 상정에 차이가 있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경우들과는 대조적으로, (17ㄱ)의 '기억이 남다'에 대해서는 연어사전에서 제시한 'FNS|CNT'가 아니라 CNT는 배제하고 FNS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7ㄱ)에서는 연어사전에서 FNS로 설정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17ㄴ)에서는 상정 가능성은 없지만 CNT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17)ㄱ. 나는 영희에 대해 <u>그녀가 아름다웠던 것으로</u> 기억이 남아 있다.
ㄴ. *나는 영희에 대해 <u>그녀가 아름다웠다고</u> 기억이 남아 있다.

(17ㄱ)은 '영희에 대해 기억이 남은 결과'가 '그녀가 아름다웠다'는 것이므로 FNS로 설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27] 사실, (17ㄱ)은 '나에게는 영희가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이 남아 있다.'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기억이 남은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FNS로의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의 (16) 등과는 달리 '영희에 대해 기억이 남은 내용'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CNT가 상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예는 CNT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17ㄴ)의 '-다고'와 같은 예문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어사전에서도 '-다고' 등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고 본고를 통해서도 (17ㄴ)과 같은 '-다고'류의 예문을 상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CNT는

27) (17)의 '기억이 남아 있다'는 목적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영희에 대해'가 '영희를'과 교체되는지 여부를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내부구조의 상정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배제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EFF와 FNS를 다루면서 언급하였던 '정평이 나다'에 대해서는 연어사전에서 설정한 'CNT|FNS'가 모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8ㄱ)은 연어사전에 제시된 예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시한 것이고 (18ㄴ)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문인데, FNS와 CNT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즉, 아래의 (18ㄱ)은 FNS를 반영한 예문이고 (18ㄴ)은 CNT를 반영하여 추가한 예문이다.

(18) ㄱ.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u>모범적인 개발도상국으로</u> 정평이 나 있다.
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u>모범적인 개발도상국이라고</u> 정평이 나 있다.

'정평이 난 결과'가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이다.'와 같은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18ㄱ)과 같은 FNS로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연어사전에서는 (18ㄴ)과 같은 예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18ㄴ)의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이라고'가 가능하므로 '내용'을 담은 CNT의 설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의 '결론이 나다, 결론이 나오다'와 함께, '정평이 나다'는 FNS와 CNT를 모두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 명사구의 의미역과 관련된 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 명사구가 FNS로만 실현되는 예나 CNT와 비교했을 때 그 쓰임이 어색한 FNS의 예만 있다면 FNS와 CNT의 비교가 무의미하지만, FNS와 CNT가 함께 쓰일 수 있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CNT를 통해서 FNS인 '로' 명사구의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평이 나다'와 같은 예가 FNS를 가진다는 것은 앞서의 '악명이 높다'에 대해 FNS를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의미역의 설정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EFF와 INS, FNS의 문제를 EFF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기준이 되는 EFF뿐만이 아니라 INS와 FNS 등을 의미역으로 모두 가질 수 있는 '로' 명사구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만, FNS와 관련해서는 CNT의 문제도 함께 언급하여야 하므로 '-고'를 통해 내포문으로 상정될 수 있는 예들도 함께 다루었다.

'비의도적인 유발자'는 EFF로 설정할 수 있고, '의도적인 방편'은 INS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차이에 따라 '고모가 교통사고로 화를 당했다.'에서의 '교통사고로'는 EFF로, '철수가 기지로 화를 면했다.'에서의 '기지로'는 INS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EFF는 AGT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나 INS는 AGT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삼촌은 엄마의 증거 제시로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본심이 드러났다.'에서 '엄마의 증거 제시로'는 EFF,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는 FNS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는 한 문장 안에서 EFF와 FNS가 동시에 쓰임으로써 EFF와 FNS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피를 당하다'의 경우에는 '창피를 당하다'의 결과를 FNS 논항으로 필요로 하기보다는 '창피를 당하다'를 유발하는 EFF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NS와 EFF에 대해서는 내부구조의 상정 여부가 구별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CNT를 발화나 인지,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FNS를 인지나 평가의 '결과'로 한정하면, '명령을 내리다, 신호를 보내다',

‘허풍을 떨다’에 대해서는 CNT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고, ‘기억이 남다’에 대해서는 FNS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의 예들에서도 확인했듯이 FNS가 술어의 역할을 할 때에도 그것이 ‘결과’를 담고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이 나다, 결론이 나오다’뿐만이 아니라 ‘정평이 나다’도 ‘로’ 명사구로 실현되는 FNS와 함께, CNT의 설정이 가능한 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CNT 자체는 ‘로’ 명사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로’ 명사구가 나타내는 FNS와 관련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로’ 명사구가 가질 수 있는 비의도적 유발자인 EFF는 행위주와 관련된 INS와 구별되면서 내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FNS와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 명사구가 FNS를 의미역으로 가질 때에는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CNT와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본고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홍재성,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2006.

2. 논문

김지은,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회, 『국어학』31, 1998, pp. 361-393.

김현권 · 김종명,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2001-10, 2001, pp. 319-325.

박철우・김종명,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서울대 어학연구소, 『어학연구』41-3, 2005, pp. 543-567.
송홍규, 「국어 결과구문의 구성에 대하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46, 2007, pp. 191-226.
신서인,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신서인, 「결과상태 의미역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35-2, 2007, pp. 63-88.
심지영,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 : 한・중 대조 및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유혜원, 「'NP-로'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연구」, 한국어학회, 『한국어학』24, 2004, pp. 189-220.
이양혜, 「격조사 '-로'의 통합격 설정」,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15, 1996, pp. 273-298.
이은섭, 「'여기-' 구문과 '삼-' 구문에서의 '로' 부사어의 통합적 의미역 할당」,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27, 2008, pp. 41-73.
이지수, 「부사격 조사 '에'와 '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임홍빈, 「{로}의 선택과 양태화」, 서울대 어학연구소, 『어학연구』10-2, 1974, pp. 143-159.
조일영・김일환, 「'NP로'의 의미역」, 청람어문학회, 『청람어문학』21, 1999, pp. 1-22.
최형강, 「'논항 부가어'와 '부가어 논항'의 설정 문제에 대하여」, 태학사,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2006, pp. 447-465.
최호철 외, 「기계 번역을 위한 한국어 논항 체계 연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의미학』3, 1998, pp. 1-39.
황국정, 「현대국어의 필수적 '-로' 논항의 실현 원인」, 국어학회, 『국어학』63, 2012, pp. 341-360.

3. 단행본

김창섭,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2008.
남기심, 『국어 조사의 용법 - '-에'와 '-로'를 중심으로』, 박이정, 1993.
남기심 편, 『국어문법의 탐구 Ⅲ』, 태학사, 1996.
이남순, 『격과 격표지』, 월인, 1998.

이선웅,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2005.
Grimshaw, J.,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1990.
Palmer, F. R.,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투고일**: 2019. 8. 15 **심사완료일**: 2019. 9. 20 **게재확정일**: 2019. 6. 23)

최형강
소속: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전자우편: quark77@hanmail.net

[Abstract]

Thematic Roles of 'lo' Phrase
- Focusing on EFF, INS, FNS -

Choe, Hyeong-gang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heck the different thematic roles of 'lo' phrase. The different thematic roles of 'lo' phrase are EFF, INS and FNS. FNS is also related to CNT.

EFF is the semantic role of the entity that brings about a result or event unintentionally. INS is the semantic role of the entity that the agent uses to perform an action or start a process. In other words, EFF is related to non-intention, but INS is related to intention.

FNS indicates the result of evaluation by the predicate, so it is different from EFF. As FNS is considered to be a predicate in the internal structure, it seems to resemble CNT. But it is necessary that limit CNT to message or cognition and FNS to result of evaluation.

Key words: 'lo' phrase, thematic role, EFF, INS, FNS, CNT